



제24차 RCA 국가 대표자 회의 개최 및 RCA 지역 사무국 개소

이 학 범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서기관

오늘날 세계는 한편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글로벌리즘(Globalism)'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으로 대표되는 '리저널리즘(Regionalism)'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 조류는 때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원자력 분야에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라는 전세계를 망라하는 국제 기구와 RCA라는 지역 협력체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는 3월 25일~29일간 우리 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제24차 RCA 국가 대표자 회의와 RCA 사무국 개소식과 관련하여 RCA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RCA 개요

RCA(아·태 지역 원자력 협력

협정)의 공식 명칭은 「핵과학과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이다.

이 협정은 아·태 지역의 IAEA 회원국간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실제 응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1972년 체결되었다.

회원국은 한국·일본·중국·필리핀·베트남·미얀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폴·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몽고·호주·뉴질랜드·태국 등 17개국이며, 우리 나라는 1974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RCA의 양대 주요 정책 결정 기구는 매년 3월 회원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국가 대표자 회의와 매년 9월 IAEA 정기 총회와 연계하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정기 총회가 있다.

국가 대표자 회의에서는 연차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며, RCA 프로그램 전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안 프로젝트를 검토·승인한다.

정기 총회에서는 국가 대표자 회의에서 조정된 연차 보고서를 승인하며, 국가 대표자 회의에서 상정한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결한다.

이밖에도 <표 1>과 같이 사업 분야별 선도국 회의(Lead Countries' Meeting)를 개최하여 사업 검토 및 예산 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RCA/아프리카 협력 협정(AFRA: AFRICA Regional Agreement)/라틴 아메리카 협력 협정(ARCAL: Agreement for Regional Cooperation in America Latin) 삼자 회의를 통하여 다른 지역 협력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조정해 나가고 있다.

RCA 협정에 의하여 RCA 사무국 기능은 IAEA가 수행하고 있다. IAEA는 RCA 관련 사업의 지원 및



〈표 1〉 RCA의 주요 정책 결정 기구

회의명	회의내용
RCA 총회 (General Conference Meeting)	연차 보고서 승인, 주요 정책 결정 등 - 매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
RCA 국가 대표자 회의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연차 보고서 초안 검토, 사업 이행 점검, 신규 사업 제안·검토 등 - 매년 회원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
사업 선도국 회의 (Lead Countries' Meeting)	사업 검토 및 예산 배정 - 사업 분야별 책임자들간의 회의
RCA/AFRA/ARCAL 3자 회의 (Tripartite Meeting)	아·태 지역, 아프리카 지역, 라틴아메리카 지역 3자간 협력 강화 모색

관리를 위해 IAEA 사무국 기술협력부에 RCA 조정관 1인을 두고 있다.

RCA 연간 예산 규모는 약 US \$550만 규모이며, 재원으로는 IAEA 정규 예산중 연구 계약 자금 (Research Contract Funds), RCA 회원국 특별 기여금, RCA 회원국 현물(In-Kind) 기여, IAEA 기술 협력 자금 등이 있다.

RCA 사업은 2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데, 2001/2002년 사업 기간중에는 농업, 보건, 산업, 환경, 에너지·연구지원자로·폐기물관리, 방사선 방호, 일반 관리 등 7개 분야의 32개 사업(계속 사업 19개, 신규 사업 13개)을 수행할 예정이다. 2001년 예산은 721만불이며 2002년은 397만불이다.

각 회원국은 RCA 국가 대표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각국의 국가 대표자는 IAEA와 자국의 해당 RCA 사업 책임자간의 연계 역할을 담당한다. RCA 국가 대표자는 연례 국가 대표자 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며 RCA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RCA 국가 대표자는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장이 맡고 있다.

제24차 RCA 국가 대표자 회의 및 RCA 30주년 기념 행사

제24차 RCA 국가 대표자 회의

가 3월25일~29일간 우리 나라 서울 및 대전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17개국 국가 대표자들과 IAEA 기술 협력 담당 사무차장 등을 포함하여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2002년 RCA 사업 검토」, 「2003~2004 RCA 사업 계획」, 「차기 국가 대표자 회의 개최 방안」 등이다.

이번 회의는 여러 가지 주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게 되며, 내년 3월 제25차 RCA 국가 대표자 회의까지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올해는 RCA가 설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우선 「RCA 설립 30주년 기념 과학포럼」이 3월25일에 개최될 계획인 바, 이 포럼에는 한국·호주·일본·인도·방글라데시 등 5개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초청되어 기념 강

연을 하게 된다. 이번 강연회는 그간 30년간의 RCA 성과 및 업적을 뒤돌아 보고, 향후 새로운 세대를 위한 비전 및 발전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CA 30년의 주요 성과를 홍보하는 전시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전시회는 그간 RCA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및 지역간 주요 사업 등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RCA 지역 사무국 한국 설치

RCA 지역 사무국이란 IAEA 본부에 있는 RCA 사무실(RCA Office)에 대응하여, 아·태 지역 내에 위치하여 회원국들의 대표 기구 역할을 하는 사무국을 의미한다.

지역 사무국의 설치·운영 필요성에 대해 1980년대 초반에 논의된 적이 있으나, 그 당시 사업이 많지 않았고 재정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었기 때문에 시기가 오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표 2〉 제24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일정

3월 23일, 토요일 RCA 의장국 사전 회의 (과학기술부)
3월 25일, 월요일 09:30 개회식(서울 팔래스호텔) 10:30 세션 I 14:00 RCA 설립 30주년 과학포럼 (서울 팔래스호텔)
3월 26일, 화요일 09:00 세션 II 13:00 세션 III
3월 27일, 수요일 09:00 세션 IV 10:45 세션 V 17:00 RCA 지역사무국 오픈닝 (한국원자력연구소)
3월 28일, 목요일 09:00 세션 VI (한국원자력연구소) 10:30 한국원자력연구소 방문 14:00 폐회식 15:3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문
3월 29일, 금요일 13:30 영광 원전 방문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 것은 1997년 3월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된 제19차 RCA 국가 대표자 회의에서이다. 동 회의에서 제시된 「RCA 연혁 2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25년의 비전을 내다보는 보고서」에서, RCA의 미래 발전을 위해 회원국들의 주인 의식(Ownership)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 사무국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98년 뉴질랜드(제20차), 1999년 싱가포르(제21차)에서 개최된 RCA 국가 대표자 회의에서도 논의

가 되었으나 지역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모두 합의하였지만 지역 사무국 운영 경비 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2000년 3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제22차 RCA 국가 대표자 회의에서 우리 나라는 RCA 지역 사무국의 설치에 결정된다면 한국에 유치코자 하며 한국은 지역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회원국들은 2001년 3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 제23차 RCA 국가 대표자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2001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0차 RCA 정기 총회에서는 2002년 3월 한국에 지역 사무국을 설치하되 지역 사무국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선 2년 동안 한국 주도로 지역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면서 필요한 작업을 추진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24차 RCA 국가 대표자 회의 개최와 연계하여 3월 27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RCA 지역 사무국은 사무국장·프로젝트담당관·행정담당관·사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향후 IAEA 및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 사무국은 지역 내에서 위치하면서 RCA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 조정함으로써 RCA의 주인 의식(Ownership)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둘째, RCA 사업 수행과 관련, 지역의 진정한 필요와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해결 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IAEA·FAO(식량농업기구) 등 관련 국제 기구와의 연계 및 재원 확보를 위한 활동과 타지역 협력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RCA 지역사무국이 한국에 설치되는 데 따른 기대 효과로서는 17개 아·태 지역 국가가 참여하는 RCA 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아·태 지역 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중국·베트남 등 원자력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아·태지역 국가와의 기술 협력 확대를 통하여 원자력 기술 수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RCA 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워크숍·회의 등 원자력 관련 국제 행사의 국내 유치로 부수적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 원자력 관련 산업체·연구소 등의 국제화 촉진 및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